

농진청,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개선

벼멸구·과수 탄저병 집중 예찰… 품질 저하·생산량 감소 예방

농촌진흥청(정장·권재현)은 이상기상 영향으로 벼멸구, 과수 탄저병 같은 일반병해충 발생 양성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예찰·방제 체계를 개선해 조기 발견 및 발생 초기 효과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병해충을 사전에 막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발생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에 맞는 병해충 예찰·방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예찰·상황점검 및 병해충 예방 교육 등

을 이행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농업인은 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월동 전염원 제거 등 겨울철 사전 관리를 한다. 또한 지역 농업기술센터(지자체)가 주관하는 예찰·방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참고해 자가 예찰한다. 병해충 관련 민원은 농촌진흥청 병해충 발생 신고 대표번호(1833-8572)로 문의한다.

노지체조(마늘, 양파, 고추 배추·무 등), 과수(사과, 복숭아, 단감 등), 벼 등 주요 작목의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월 2회 이상 정기 예찰과 전국 단위 일제 예찰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소속 연구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종양 예찰단 운영을 확대한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예찰단을 편성, 병해충 예방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과 협업체로 공동 예찰을 추진한다.

전국 병해충 관찰포 2,000여 곳과 중국·베트남 현지의 병해충 발생 정보, 주요 15개 작목 주산 시군(72개) 병해충 동향 등을 종합해 국내 디밸런시가 우려되는 병해충 정보를 고도화한다. 또한 예측 모형을 활용해 예측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자료를 토대로 주요 작목의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접점하고, 매주 주산지별 작목별 관계자가 수집

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매월 정기 회의를 열고 지역별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예찰·방제 추진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상·기류분석 등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방제 적기 정보를 제공해 올해 문제가 됐던 벼멸구 발생에 대응한다. 광주별 초기 병해충 발생 시점 및 과실 성숙기에 맞춰 과수 탄저병 집중 예찰 시기를 조정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작목별 예찰 기간과 주기 조정, 지역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병해충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토록 하고, 추가 방제와 예찰 관리 등 후속 조치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이 한국은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한국은행 국고업무 자금결제부문에서 우수금융기관에 선정됐다.

전북은행, 국고업무 우수 금융기관 선정

수신추진부 박은혜 과장 한국은행 총재 유공포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한국 금융산업 발전과 한국은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한국은행 국고업무 자금결제부문에서 우수금융기관에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으로서 국고금 수납을 위해 지난 2021년 키카오뱅크와 국고금 수납 점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7월에는 케이뱅크와 추가 협약을 맺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제휴를 통해 관련 연계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기안전공사, 청렴·인권경영 실천 내부통제 강화 선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9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청렴·윤리·인권 경영 실천 및 내부통제 강화 선언’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기관 경영 필수 가치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사전 위험예방 체계 구축’ 등도 이번 선언에 포함됐다. 안전사고와 재무적 오류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의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인 준수 수준을 올리겠다는 뜻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기안전공사 남희영 사장과 권재홍 상임이사를 포함해 전국 사업소장 등 전체 임원이 참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선포식 이후, 한국내부통제연구원 문호승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임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도 진행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희영 사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청렴·윤리·인권경영과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탄소진흥원, 기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 우수작 시상식

Chat GPT 활용 등 AI기술 이용한 업무 성과 향상 아이디어 대상 선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흥민)은 지난 28일 제2회 기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을 진흥원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기관 혁신에

대한 직원 참여도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탄소산업 육성 전문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가운데 진행된 내부 공모전에서는 △간소화, △효율화 △선행화 등 3가지 주제에 걸쳐 업무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기술 도입 등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28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한국탄소산업진

합 및 회원기업 일원화 등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산업정책실 유병민 책임은 “평소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직원들도 최신버전의 AI엔진을 사용해 업무생산성 향상에 도움 받기를 기대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회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은 연발연시를 맞이해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친목을 함께 나누고자 상금 일부를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선력보육원에 기부하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모범을 보였다.

/김옥기 기자

한전 전북본부, 노사합동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활동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 노조 위원장 서재용)는 최근 연말을 맞아 전리복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사합동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였다.

이번 연탄나눔 사회공헌활동은 전주 연탄은행과 함께 전리복도 내 취약계층 25가구를 선정하여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지원하였으며, 한전 임직원들은 연탄은행 봉사자들과 합심하여 직접 연탄을 전달하였다.

사회공헌 재원은 매월 전북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기부로 조성되

는 러브펀드 기금을 통해 마련했으며, 연탄 5,000점(약 500만원 상당)을 준비해 지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결산·투자현황 보고회



말(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이인호 협회장을 중심으로 도내 선배 벤처창업가 7인이 뜻을 모아 후배 창업기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은행, 임원급 부행장 선임 인사 실시

1970년 이후 출생자 4명 발탁, 깊고 강한 은행 이미지 도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지난 24일 부행장 4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임원 인사는 김홍용 서율지점장·정선기 여신판단부부장·유은기 종합부부장·정용 팔복동지점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신임 부행장에 선임됐다.

일선 영업점에서 턱월한 영업력으로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